

정서 인식 및 표현 양식에 따른 하위집단과 심리적 건강*

이동귀* 김혜영 최해연
연세대학교 서울대학교

본 연구에서는 먼저, '정서인식 및 정서표현에 의한 대처 척도'의 요인 구조를 대규모의 대학생 집단($N = 905$)을 대상으로 엄정한 탐색적 요인분석으로 조사하고 그 타당성을 다른 대학생 집단($N = 287$)을 대상으로 한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검증하였다. 그 결과, 기존의 5요인이 아닌 4요인(조절적 정서인지, 차폐적 정서행동, 발산적 정서행동, 조절적 정서행동)이 도출되었다. 다음으로, 이 네 차원에 따라 두 번째 표본에서 어떤 자연 발생적인 하위집단이 형성되는지 알아보기 위해 군집분석을 실시하고 각 하위집단별로 심리적 건강 지표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다변량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네 개의 군집(높은 조절 집단, 낮은 정서대처 집단, 높은 차폐행동 집단, 높은 발산행동 집단)이 나타났고, 군집 간에 심리적 건강 지표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특히, 높은 발산행동 집단이 전반적으로 심리적 건강지표에서 가장 부적응적인 양상을 나타냈는데, 이 결과는 부적절한 정서의 분출을 주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전반적으로 심리적으로 건강하지 못함을 시사한다.

주요어 : 정서 대처, 정서, 정서조절, 대처, 스트레스, 심리적 건강

현대인들의 삶에 있어서 크고 작은 부정적인 생활사건이나 스트레스는 피할 수 없는 경험 중의 하나이다. 부정적인 생활사건 자체를 바꾸기란 용이하지 않은데 반해(Gross, 2001), 이 사건들에서 파생되는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coping)는 개인의 노력으로 가능한 부분이며, 이러한 대처행동이 개인의 심리적 및 신체적 안녕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 많은 연구들을 통해서 밝혀져 왔다(Aldwin & Revenson, 1987; Carver, Scheier, &

Weintraub, 1989; Endler & Parker, 1989; Miller, Brody, & Summerton, 1988) 대처¹⁾란 스트레스 사건에 의해 유발된 내적 외적 요구를 다루는 데 사용되는 인지적 또는 행동적 노력(Folkman, 1984)을 뜻하는데, 주로 스트레스 문제의 근원에 대해 직접적으로 대처하는 문제 중심적 대처(problem-focused coping)²⁾와 스트레스 상황으로 유발된 부정적 정서를 조절하고자 하는 정서 중심적 대처(emotion-focused coping)로 나누어진다(Lazarus &

* 본 연구는 연세대학교 BK21 인지 및 심리과학 전문인력양성 및 실용화 사업단의 연구비 지원으로 이루어졌음.

* 교신저자 : 이동귀, (120-749) 서울시 서대문구 신촌동 134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전화 : (02) 2123-2437, E-mail : lee82@yonsei.ac.kr

1) 여기서 대처의 의미는 대처양식(coping styles) 보다는 대처방략(coping strategies)에 가깝다.

2) Endler와 Parker(1990)는 문제 중심적 대처를 과제 지향적 대처(task-oriented coping)라고도 부르며 있으며 과제 지향적 대처와

Folkman, 1984).

일반적으로 대처에 관한 연구 결과들을 보면, 문제 중심적 대처가 심리적 적응과 정적인 관계가 있는 데 비해, 정서 중심적 대처가 정신건강에 미치는 효과는 분명하지 않으며 때로는 부정적이다. 예를 들어,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한 Ben-Zur(2005)의 연구에서 문제 중심적 대처를 많이 할수록 심리적으로 건강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 정서 중심적 대처를 할수록 정신 건강에서 부정적인 결과를 나타냈다. 또한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Compas, Malcarne 및 Fondacaro(1998)의 연구에서도 문제 중심적 대처를 하는 아동의 경우에 정서 및 행동 장애를 경험하는 정도가 낮은 반면, 정서 중심적 대처를 많이 하는 아동은 보다 많은 정서 및 행동 장애를 경험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자신의 정서를 있는 그대로 느끼고 잘 이해하며 그 느낌을 자신의 내면과 상황에 맞추어 적절하게 표현하는 것은 스트레스 상황의 대처에 도움을 준다는 견해(예, Carver et al., 1989; Salovey & Mayer, 1990)에 비추어볼 때, 정서 중심적 대처의 이러한 부정적인 효과는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 면이 있다. 이 문제에 관해서 Stanton, Danoff-Burg, Cameron과 Ellis(1994)는 그 이유를 설득력 있게 설명하고 있는데, 첫째, 정서 중심적 대처 차원에 너무 다양하고 때로는 상반되는 내용의 방략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정서 중심적 대처의 효과가 때로는 긍정적으로 또 때로는 부정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 둘째, 정서 중심적 대처를 측정하는 일부 문항들에 이미 부정적인(스트레스를 경험하는)내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들이 부적응과 관련이 될 가능성이 있다. 예를 들어 Endler와 Parker(1990)가 개발한 정서 지향 대처 문항인 ‘내가 부적절하다는 느낌에 초점을 맞춘다(Focus on my general inadequacies)’ 자체에 이미 부적절감이라는 부정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항들이 정신건강 지표와 부적응으로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비슷한 맥락에서, 연구자들(최해연, 민경환, 2003; Carver & Scheier, 1986)은 정서 중심적 대처에

관한 상당수의 연구와 측정도구들이 정서 중심적 대처라는 개념 안에 서로 다른 기능과 전략을 가진 대처 양식들을 구분하지 않은 채 포함하고 있으며, 또한 정서 이해와 표현 차원들을 포괄하고 있지 않은 한계점을 지적해 왔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근거해 기존의 정서-중심 대처 척도들의 보완을 목적으로 최해연과 민경환(2003)이 개발한 척도가 바로 ‘정서인식과 표현에 의한 대처’(Coping through Understanding and Expression of Emotion; CUEE)이다.

정서인식과 표현에 의한 대처(Coping through Understanding and Expression of Emotion; CUEE) 척도

CUEE(최해연, 민경환, 2003)는 기존의 정서 중심적 대처 척도의 문제점을 극복하고자 다음의 두 가지 요건을 충족시키는 방향으로 제작되었다. 첫째, 기존의 정서 중심적 대처 척도들에서는 정서 이해와 표현을 반영하는 문항이 적다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CUEE에는 정서 이해와 정서 표현을 측정하는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구체적으로, 기존에 많이 사용되는 척도[예, Way of Coping Questionnaire(WCQ; Folkman & Lazarus, 1980), COPE(Carver et al., 1989)]에서는 정서 표현을 통한 대처를 나타내는 문항이 각각 두 문항과 네 문항이 전부이며, 이 문항들 역시 정서반응과 정서표현이 혼합되거나 정서표현보다는 사회적 지지추구 성격의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어서 정서 표현을 잘 대표하고 있지 못하고, 정서에 대한 인지적 이해 역시 정서 중심적 대처에 중요한 측면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을 반영하는 문항이 부족하였다(최해연, 민경환, 2003). 둘째, 이러한 정서표현과 이해의 양식이 세분화된 차원으로 분류되어야 할 필요가 있었다. 기존의 정서 중심적 대처 척도에서 이해와 표현 항목이 부족하다는 점에 주목하여 Stanton, Kirk, Cameron 및 Danoff-Burg(2000)가 보완·제작한 정서적 접근 대처 척도(Emotional Approach Coping Scale; EACS)을 보아도 ‘나는 내 감정을 인정한다’, ‘나는 감정을 자유롭게 표현한다’ 등과 같은 일반적인 정서의 이해와 표현을 반영하는 문항들이 포함되었는데, 이들 문항을 포함시킨 이론적, 경험적 근거가 충분치 않다는 점이 지적되었고, 이론적 근거에 기초해 새로운 척도를 개발할 필요성이 있었다(최해연, 민경환, 2003).

대처 또는 정서조절은 그 중요성에 비해 정교한 개념

정서 지향적 대처 이외에도 회피 지향적 대처에 대해 언급했으나 일반적으로는 Lazarus와 Folkman(1984)이 언급한 문제 중심적 대처와 정서 중심적 대처로 구분하며 회피 지향적 대처는 정서 중심적 대처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화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다(Cole, Marin, & Dennis, 2004). 그럼에도 여러 연구자들은 정서를 다루는 데 있어 유연하고 적응적인 양식과 경직되고 덜 적응적인 양식을 구분하기 위하여 노력해왔고, 정서와 관련된 대처양식이 자발적인지 반응적인지, 또는 억제적인지 접근적인지에 따른 구분(Derryberry & Rothbart, 1997; Eisenberg & Morris, 2002)은 이런 노력에 진전을 가져왔다. 자발적이고 유연한 자기 조절적 과정에 비해 반응적 통제(reactive control)는 적응에 부정적으로 작용하였다. 반응적 통제는 억제되고 경직된 행동(Block & Block, 1980; Kagan, Reznick, & Gibbons, 1989)과 같은 과도한 통제(overcontrol)와, 충동적인 접근행동과 같은 통제의 부족(undercontrol)으로 구분되는데, 과도한 통제는 사회적 철회 및 우울이나 불안과 같은 내면화문제와 연결되며, 통제의 부족은 비행과 공격행동과 같은 외면화문제와 연결되었다(Eisenberg et al., 1997; Eisenberg et al., 2001). 정서 표현이 내적 긴장을 해소하고 대인간 의사소통의 기능을 하기도 하지만(Buck, 1984), 부정적인 정서 반응을 유지하거나 증폭시키기도 하는 것은(Tavris, 1989), 정서 표현의 양식에 따른 차이 때문일 수도 있다. 이는 정서적 경험을 다루기 위한 정서표현이 자발적이고 조절적인 방향 뿐 아니라 과도한 통제와 통제의 부족을 반영하는 양식(차폐와 발산)으로 구분될 수 있으며, 표현양식에 따라 그 영향이 다를 것임을 시사한다. 한편, 정서는 인지(평가)와 행동(행동경향성 및 표현)으로 구성되며 이 중 어떤 과정에 개입하느냐에 따라 정서조절방략이 구분된다는 점에는 많은 연구자들이 동의하고 있다(Garnefski, Kraaij, & Spinhoven, 2001; Gross, 1998; Parkinson & Totterdell, 1999). 즉, 정서표현 차원과 정서인식 차원이 구분되며, 정서인식 차원 역시 자신의 정서상태를 이해하려는 조절적 양식과 정서 상태에 과도한 초점을 두는 발산양식 및 정서 상태에 대한 주의 자체를 피하는 차폐양식과 구분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개념화에 따라, CUEE에서는 개인이 자신의 정서에 주의를 기울여 인식, 조절, 표현하는 조절적 양식, 부정적 정서를 인식하지 않으려 하고 표현을 억제하려는 차폐적 양식, 지나치게 반추하거나 여과 없이 감정을 분출하는 발산적 양식의 세 가지 양식으로 정서적 대처 양식을 구분하였다. 또한 인지·행동의 차원을 구분하여, 조절·

차폐·발산의 차원과 더불어 2×3 범주로 문항을 구성하였다. 36문항의 예비문항 개발과정과 신뢰도 분석 및 문항변별 작업을 거쳐 18문항으로 최종 문항을 선별하였으며, 이 문항들에 대해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발산적 정서행동, 조절적 정서인지, 차폐적 정서행동, 조절적 정서행동, 발산적 정서인지의 5요인 구조가 나타났다(최혜연, 민경환, 2003 참조).

CUEE 5요인 구조의 문제점 및 본 연구의 목적

CUEE는 기존의 정서 중심적 대처 척도의 문제점에 주목하여 새롭게 척도를 보완하였고 정서 중심적 대처의 다양한 하위 차원을 보여 주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이 척도의 문제점은 척도의 하위차원을 구분하는데 사용된 요인분석이 엄정한 기준 하에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구체적으로, CUEE의 요인 구조에서 각 문항의 요인 부하량(factor loadings)을 보면, 교차요인 부하량(cross-loadings)이 높은 문항들이 상당수 존재한다. 탐색적 요인분석은 한 문항이 여러 요인에 소속될 수 있음을 가정하고 있기 때문에, 교차요인 부하량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이 교차요인 부하량이 지나치게 높은 경우 한 문항이 어떤 요인에 귀속되는지가 불분명하게 된다. 이 때문에 따라서 명확한 요인구조를 밝히기 위해서는 교차요인 부하량이 높은 문항은 제외시키는 연구자의 기준이 필요하다(Pett, Lackey, & Sullivan, 2003). 그런데, 최혜연과 민경환(2003)의 연구에서는 이러한 기준 없이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요인구조가 명확하지 못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 예를 들어, 요인 1(발산적 정서행동)의 한 문항인 ‘엉뚱한 데 분풀이 한다’에 해당하는 요인 부하량은 .74이지만 이 문항은 동시에 요인 5(발산적 정서인지)에 -.40의 높은 요인 부하량을 보이고 있다. 이는 이 문항이 요인 1에 의해서 55%가 설명되지만, 동시에 요인 5에 의해서도 16%가 설명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러한 방식으로 교차 부하량이 높은 문항이 상당수 포함된 CUEE의 5요인이 각각의 문항을 잘 대표하고 포괄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탐색적 요인분석만으로는 요인 구조에 대한 결론을 내릴 수가 없는데, 왜냐하면 이 결과가 연구 포본(sample)의 특성에 따라 가변적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방법론적 측면에서 정확한 요인구조는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서 검증되어야 한다(Brown, 2006).

따라서 본 연구는 정서 인식 및 표현 양식에 따른 대처척도(CUEE)를 개선하고 그 구조 및 기능을 이해하는데 목적이 있다. 따라서 연구 1을 통해 좀 더 엄정한 기준으로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어떤 요인구조가 나타날지를 찾아보고(연구 1-1), 탐색적 요인 분석에서 나타난 요인구조가 적합한지를 다른 표본을 대상으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고자 한다(연구 1-2). 연구 2에서는 CUEE의 하위차원에 따라 다양한 자연발생적인 하위집단이 구성될 것이라고 예측하여, 대학생 집단(연구 1-2에 사용된 표본과 동일)을 대상으로 어떤 하위 집단이 발생하는지 알아보고, 그 집단에 따라 정서 중심적 대처와 관련이 깊다고 알려진 심리적 건강의 측면에서 어떤 차이가 발생하는지 조사하고자 한다. 이렇게 정서 대처방략에 따라 군집을 나누고, 그에 따른 적응의 차이를 보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정서 중심 대처방략을 사용하는데 있어서 다양한 개인차가 나타날 수 있으며 이를 무시하는 경우 Kiesler(1966)가 말한 획일성의 신화(uniformity myth)의 우를 범할 수가 있기 때문이다. 한 개인이 사용하는 정서 중심 대처 양식은 한 종류가 아니라 여러 가지일 수 있고, 그 대처 양식들의 조합에 따른 하위집단별로 다른 특징이 나타날 수 있다. 예를 들어, 자신의 기분이 무엇인지 생각하는 경향이 높은 경우, 그 기분을 숨기려고 하는 사람과 그 기분을 다른 사람에게 표현하고 나누려는 사람은 정신 건강의 측면에서 다른 양상을 보일 수 있다. 이와 같이 정서 중심 대처와 정신 건강 간의 관계는 단순한 상관관계를 넘어서 정서 대처 양식의 조합을 통해 다양한 하위집단을 형성할 수 있다. 이는 보다 현실에 가까운 개인차를 반영하며 이를 바탕으로 실제 대학생들이 정서 조절 양식과 적응의 관계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연구 1

연구 1-1

연구 1-1에서는 기존 CUEE 연구(최혜연, 민경환, 2003)의 요인분석의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엄정한 기준으로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어떤 요인구조가 나타나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방 법

연구대상

서울시 소재 대학에 소속된 대학생 905명(남 503, 여 402)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다. 평균연령은 21.67세($SD=2.47$)였다. 전체 응답 대상자 905명 중 응답 자체가 누락된 2명을 제외하고 총 903명(남 502, 여 401)의 자료에 대해 분석을 실시하였다.

측정도구

정서 인식과 표현에 의한 대처

최혜연과 민경환(2003)이 개발한 정서 인식과 표현에 의한 대처(Coping through Understanding and Expression of Emotion; CUEE)척도를 사용하였다. 총 18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 척도는 각 문항에 대해 4점 리커트 척도(0= 전혀 그렇지 않다, 3= 상당히 그렇다)에 평정하도록 되어있다. 최혜연과 민경환(2003) 연구에서는 발산적 정서행동, 조절적 정서인지, 차폐적 정서행동, 조절적 정서행동, 발산적 정서인지로 5개의 하위 요인으로 구성되었으며, 내적합치도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65였다. 본 연구에서 18문항의 내적합치도 신뢰도 계수는 .69로 나타났다.

자료분석

SPSS 12.0을 이용하여 탐색적 요인 분석을 실시하였다. 최대우도법(maximum likelihood)을 사용하여 요인을 추출하였고, 요인 회전은 직접 오블리민(direct oblimin)방식을 이용하였다. 요인구조의 적절성을 검증하기 위해 고유값(eigenvalue), 스크리 도표(scree plot), 요인 부하량 및 설명량 등을 고려하였다. 요인의 문항을 선정할 때는 보다 명확한 요인을 추출하기 위해 Pett 등(2003)이 제안한 기준에 근거하여 요인 부하량이 .40 이하인 경우와 교차 요인 부하량이 .25 이상인 경우에 그 문항을 삭제하였다.

결 과

요인 구조

CUEE 18문항에 대해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표본적합도를 나타내는 KMO(Kaise-Meyer-Olkin

표 1. CUEE의 요인구조(4요인, 14문항)

14문항($\alpha=.63$) 문항	패턴 계수				h^2	M	SD
	요인1	요인2	요인3	요인4			
요인 1 : 조절적 정서인지(5 문항 $\alpha=.79$)							
내 기분이 정확히 무엇인지 생각한다.	.77	-.08	-.04	-.07	.42	3.52	.83
내가 왜 이렇게 느끼는지 생각한다.	.73	.06	.01	.02	.43	3.73	.83
기분이 좋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 생각한다.	.68	.07	-.02	.05	.40	3.73	.88
내 느낌을 이해하려고 노력한다.	.60	.01	-.05	.04	.33	3.35	.88
내 기분에 대하여 반복하여 계속 생각한다.	.54	.01	.15	-.00	.30	3.68	.76
요인 2 : 차폐적 정서행동(3 문항; $\alpha=.67$)							
나의 기분이 드러나지 않도록 주의한다.	-.04	.67	.04	-.11	.30	3.55	.88
태연하게 행동하려 한다.	.03	.66	-.03	.02	.30	3.04	.97
너무 감정적으로 표현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04	.56	-.08	.05	.22	3.32	.98
요인 3 : 발산적 정서행동(3 문항; $\alpha=.61$)							
영양한 대상에 분풀이한다.	-.05	.04	.75	.01	.28	1.99	1.08
소리를 지른다.	.03	-.09	.59	-.01	.25	3.30	1.04
짜증을 낸다.	.06	-.03	.45	.05	.18	2.08	1.09
요인 4 : 조절적 정서행동(3 문항; $\alpha=.64$)							
공감이나 위로를 구한다.	-.02	.02	.07	.70	.30	3.30	1.01
내 감정이 적절한지 다른 사람에게 확인한다.	-.01	.04	.09	.66	.28	2.94	1.10

주. h^2 =공통분(communality)

CUEE 18문항에서 제외된 문항: “내 감정을 과장시켜 이야기한다”, “말투나 표정으로 내 감정을 나타낸다”, “기분과 상반된 행동을 한다”, “자꾸 좋지 않았던 기분을 떠올린다”.

Measure) 지수가 .80이었고, Bartlett의 구형성 검증 결과는 $p<.001$ 로 요인 분석을 하기에 적합한 자료인 것으로 나타났다. 스크리 검사에서 고유치(eigenvalue)가 급격히 작아지기 직전까지의 요인을 요인의 수로 판단하는 기준 (Hakstian, Rogers, & Cattell, 1982; Hayton, Allen, & Scarpello, 2004)에 따라, 4개와 7개 요인이 제안되었다. 그러나 7요인 모형에서는 1개의 문항만을 포함하는 요인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를 기각하였고, 4요인 모형이 통계적인 측면이나 각 요인을 구성하는 문항의 내용 면에서도 가장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기존의 최혜연과 민경환(2003)의 연구에서 나타난 5요인 구조와는 다른 결과이다. 문항에 있어서도, Pett 등(2003)의 문항 삭제 기준에 따라 18문항 중 4문항이 추가로 삭제되어 최종적으로 14문항이 선정되었다.

요인 1은 ‘조절적 정서인지’로, 전체 변량의 23.30%를 설명하였으며, 5문항의 내적합치도는 .79로 나타났다. 요인 2는 ‘차폐적 정서행동’으로, 전체 변량의 15.54%를 설

명하였으며, 3문항의 내적합치도는 .67로 나타났다. 요인 3은 ‘발산적 정서행동’으로, 전체 변량의 11.36%를 설명하였으며, 3문항의 내적합치도는 .61로 나타났다. 마지막 요인 4는 ‘조절적 정서행동’으로, 전체 변량의 8.28%를 설명하였으며, 3문항의 내적합치도는 .64로 나타났다. 네 요인들의 총 설명변량은 58.47% 이었고, 14문항의 내적합치도는 .63을 보였다. 각 요인별 문항의 요인 부하량 및 공통성, 요인점수 및 평균과 표준편차를 표 1에 제시하였다.

CUEE 하위요인 간 상관

새로이 구성된 네 요인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조절적 정서인지와 조절적 정서행동 사이에($r=.31, p<.01$), 차폐적 정서행동과 발산적 정서행동 사이에($r=-.15, p<.05$), 그리고 발산적 정서행동과 조절적 정서행동 사이에($r=.12, p<.05$)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이를 통해 대처방략 중 조절적 정서인지와 조절적 정서행동은 같

표 2. CUEE 4요인 모형의 적합도 지수(N=284)

	df	χ^2	TLI	CFI	RMSEA	(90% CI)
5요인 모형	125	291.72	.82	.86	.069	(.06 - .08)
4요인 모형	125	134.82	.90	.92	.056	(.04 - .07)

은 기능을 가진 대처방략으로서 밀접히 관련됨을 추론할 수 있다. 특이한 점은 발산적 정서행동이 차폐적 정서행동과는 부적 상관을 보이는데 반해, 조절적 정서행동이 유의미한 관련을 나타냈다는 점이다. 이는 발산과 조절이 보다 비슷한 양식을 가지고 있고, 차폐와는 다른 양식을 보인다는 점을 시사한다.

연구 1-2

연구 1-2에서는 연구 1-1에서 시행된 탐색적 요인 분석에서 나타난 요인구조가 적합한지를 다른 대학생 표본을 대상으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고자 한다.

방 법

연구대상

수도권에 소재한 두 대학에서 심리학 교양 수업을 수강하는 대학생 287명(여 150, 남 137)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다. 평균연령은 23.03세(SD=3.2)였다. 전체 응답 대상자 287명 중 전 설문 문항에 걸쳐 고르게 결측치가 많은 3명을 제외하고 총 284명(여 148, 남 136)의 자료에 대해 분석이 실시되었다.

측정도구

연구 1-1에서 사용되었던 측정도구와 동일한 측정도구를 사용하였다.

자료분석

AMOS(Analysis of Movement Structure) 5.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결 과

CUEE의 18문항, 5요인 모형과 14문항, 4요인 모형에

대하여 최대우도추정법(maximum likelihood estimation)으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5요인 모형은 $\chi^2=291.72(p<.001)$, RMSEA는 .069(90% 신뢰구간에서 .06-.08)로 어느 정도 양호한 수준이나(Browne & Cudeck, 1993), TLI는 .82, CFI는 .86으로 Hu와 Bentler (1995)가 제안한 기준 .90에 훨씬 미치지 못해 그 적합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4요인 모형은 χ^2 가 134.82($p<.001$)이고 TLI=.90, CFI=.92로 Hu와 Bentler (1995)가 제안한 기준인 .90 이상으로 적합도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RMSEA도 .056(90% 신뢰구간에서 .04-.07)으로 양호한 수준이었다(표 2 참조). 이 두 모형이 중첩(nested)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χ^2 차이 검증을 실시할 수는 없지만 모형의 적합도를 나타내는 지표들을 종합해서 판단할 때, 기존의 5요인 모형(최혜연, 민경환, 2003)보다 본 연구에서 밝혀진 4요인 모형이 더 적합하다고 결론 내릴 수 있다.

연구 2

연구 2에서는 정서표현과 이해의 양식의 조합에 따라 다양한 자연발생적인 하위집단이 구성될 것이라고 예측하여 대학생 집단(연구 1-2에 사용된 표본과 동일)을 대상으로 어떤 하위 집단이 발생하는지 알아보고, 하위집단에 따라 정서 중심적 대처와 관련이 깊다고 알려진 심리적 건강의 측면에서 어떤 차이가 발생하는지 조사하고자 한다.

방 법

연구대상

연구 1-2의 연구대상과 동일한 집단을 대상으로 하였다.

측정도구

정서 인식과 표현에 의한 대처

최혜연과 민경환(2003)이 개발한 정서 인식과 표현에

의한 대처(Coping through Understanding and Expression of Emotion; CUEE)척도를 연구 1-1에서 수정한 것을 사용하였다. 원래 총 18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 척도는 각 문항에 대해 4점 리커트 척도(0= 전혀 그렇지 않다, 3=상당히 그렇다)에 평정하도록 되어있다. 기존 연구에서는 발산적 정서행동, 조절적 정서인지, 차폐적 정서행동, 조절적 정서행동, 발산적 정서인지로 5개의 하위 요인으로 구성되었으며, 내적합치도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65였다. 그러나 본 연구 1-1에서 좀 더 엄정한 방법을 통해 새로이 밝혀진 요인구조는 조절적 정서인지, 차폐적 정서행동, 발산적 정서행동, 조절적 정서행동의 4개의 하위 요인, 14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내적합치도 신뢰도 계수는 .63이었다. 연구 2의 분석에서는 새롭게 밝혀진 4요인, 14문항을 사용하였다.

심리적 건강

간이증상검사(The Brief Symptom Inventory; BSI, Derogatis & Melisaratos, 1983)를 사용하여 심리적 건강을 측정하였다. 이 도구는 간이정신진단검사지(Symptom Checklist 90 - Revision; SCL 90-R)의 단축형으로, SCL 90-R과 높은 상관을 보였다(정신증 $r=.92$, 적대감 $r=.99$; Derogatis, 1977). BSI는 총 5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응답자는 검사 당일을 포함하여 지난 7일 동안의 심리적 상태를 정도에 따라 리커트식 5점 척도(1= 전혀 이렇게 느끼지 않는다, 5= 자주 이렇게 느낀다)로 응답하게 된다. 이 척도로 9개의 증상(신체화, 강박증, 대인예민성, 우울, 불안, 적대감, 공포불안, 편집증, 정신증) 및 전반적인 심리적 건강 수준(Global Severity Index : GSI)을 알 수 있다. 국내에서는 김광일, 김재환 및 원호택(1984)이 한국판 표준화 작업을 마쳤다. 본 연구에서의 내적합치도는 .97로 나타났다.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는 SPSS 12.0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군집분석(Cluster Analysis)과 다변량 분산분석(Multivariate Analysis of Variance; MANOVA)을 실시하였다.

군집분석

정서 대처방략에 따라 대학생 집단에서 몇 개의 하위

집단이 존재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Hair와 Black(2000)이 제안한 2단계 군집분석을 실시하였다. 이 방법은 위계적 군집분석인 Wards 방법과 비위계적 군집분석인 k-means 방법을 연달아 실시하는 방식으로 위계적 군집 방법만을 사용할 때 대부분의 사례로부터 이탈된 정도가 큰 사례들이 군집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다변량 분석

군집분석을 통해 나누어진 각 집단이 심리적 건강의 측면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MANOVA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 때 독립변인은 각 군집이고, 종속변인은 BSI의 하위요인(신체화, 강박증, 대인예민성, 우울, 불안, 적대감, 공포불안, 편집증, 및 정신증)과 GSI로 구성되었다.

결 과

군집분석 결과

CUEE의 4개 하위 요인의 점수를 군집변인으로 하여 2단계 군집분석을 실시하였다. 1단계에서 Wards 방법을 사용하여 위계적 군집분석을 실시하고 군집화 일정표(agglomeration schedule) 계수의 변화를 살펴본 결과, 4개의 군집이 제안되었다. 1단계에서 생성된 군집변인들의 각 군집별 평균점수를 초기 중심점(seed point)로 투입하여 2단계에서 k-means 군집분석을 실시하였다. 2단계 군집분석 결과 최종적으로 참여자들이 4개의 군집에 배정되었고, 군집 1은 58명(전체의 20.4%, 남 24명, 여 34명), 군집 2는 82명(전체의 28.9%, 남 46명, 여 36명), 군집 3은 73명(전체의 25.7%, 남 32명, 여 41명), 군집 4는 71명(전체의 25%, 남 34명, 여 37명)으로 나타났다. 카이제곱 검증 결과, 각 군집 내의 분포는 성별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chi^2(3, N=284)=3.68, p>.05$). 각 군집의 양상을 파악하고 군집의 이름을 정하기 위해 그림 1에 각 군집별 군집변인들의 점수를 표준화하여 나타내었다. 점수들이 표준화되었으므로 각 군집변인들의 평균은 0, 표준편차는 1이다. 군집 1은 차폐적 정서행동과 발산적 정서행동에서는 평균 이하의 점수를 보이고, 조절적 정서인지와 조절적 정서행동의 하위척도에서는 평균 이상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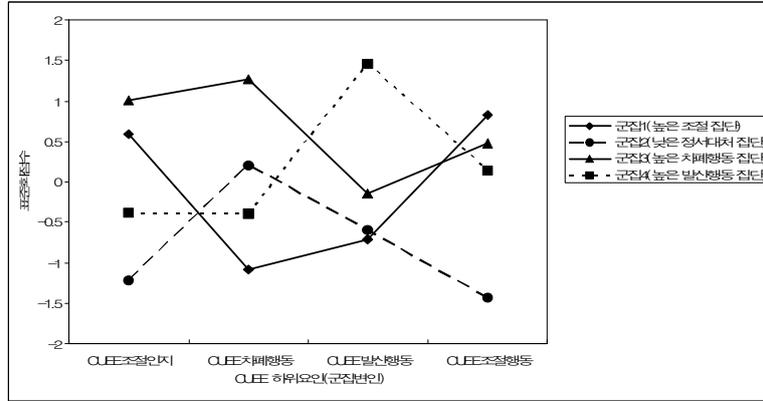


그림 1. 대학생의 정서 대처방략에 따른 군집

점수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군집 1은 ‘높은 조절 집단’으로 명명되었다. 군집 2는 전반적으로 정서 대처양식에서 낮은 점수를 보이므로 ‘낮은 정서대처 집단’으로, 군집 3은 높은 차폐적 정서행동을 보이므로 ‘높은 차폐행동 집단’, 군집 4는 높은 발산적 정서행동을 보이므로 ‘높은 발산행동 집단’으로 명명되었다.

다변량 분산분석 결과

정서 대처방략에 따라 구성된 하위집단들 사이에 심리적 건강지표들의 평균점수 상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MANOVA를 실시하였다. 이때, 독립변인은 4개의 군집이었고 종속변인은 BSI의 하위요인 점수(신체화, 강박증, 대인예민성, 우울, 불안, 적대감, 공포, 편집증, 정신증) 및 GSI였다. Box의 동일성 검정 결과 집단의 공분산행렬의 동일성 가정을 만족시키지 못하였으므로 $F(165, 152579.93)=1.90, p<.05$, Mettler와 Vannatta(2001)가 제안한대로 Pillai's Trace 값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본 연구에서 하위군집에 따라 심리적 건강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Pillai's Trace=.30, $F(30, 819)=2.98, p<.01$, 부분 $\eta^2=.10$]. 종속변인 각각에 대한 ANOVA 결과를 보면, 네 군집은 BSI의 모든 하위차원에서 .01 수준의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본 연구에서는 일반적인 유의수준($p<.05$)보다 엄격하게 $p<.005$ 를 기준으로 하였는데, 이는 11개 종속변인 각각에 대해 개별 ANOVA를 적용할 때 생길 수 있는 일종 오류(영가설이 참인데 잘못 기각할 오류)의 증가 가능

성을 통제하기 위해 본페로니 방식의 교정(a Bonferroni-type adjustment; $.05/11=.005$; Mettler & Vannatta, 2001)을 사용했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어느 군집들 사이에 종속변인 평균점수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는지 알아보기 위해 Scheffé의 방법으로 사후검정을 실시하였고 표 3에 그 결과를 제시하였다. 신체화, 강박증, 대인예민성, 우울, 불안, 공포, 정신증, GSI에서는 유의도 .05 수준에서 군집 4(높은 발산행동 집단)가 군집 1(높은 조절 집단)과 군집 2(낮은 정서대처 집단)보다 유의미하게 높았으며, 군집 3(높은 차폐행동 집단)이 군집 1(높은 조절 집단)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적대감에 있어서는 앞서 기술한 군집 간의 차이와 더불어 군집 4(높은 발산행동 집단)가 군집 3(높은 차폐행동 집단)보다 유의미하게 높은 점수를 나타냈다. 편집증에 있어서는 군집 4(높은 발산행동 집단)가 군집 1(높은 조절 집단)과 군집 2(낮은 정서대처 집단)보다 높았다. 요약하면, 전반적으로 군집 4(높은 발산행동 집단)가 다른 집단에 비해 심리적 부적응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논 의

정서의 인식과 표현이 정서 중심 대처 차원에서 중요하다는 전제 하에서 개발된 척도인 CUEE(최혜연, 민경환, 2003)는 정서적 대처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주었으나, 엄정한 요인분석 과정을 거치지 않아서 요인구조가 명확

표 3. 각 군집별 심리적 건강 지표의 평균점수

	군집 1 높은 조절집단 (n = 58)		군집 2 낮은 정서대처집단 (n = 82)		군집 3 높은 차폐행동집단 (n = 73)		군집 4 높은 발산행동집단 (n = 71)		F(3,280)	사후검증
	M	SD	M	SD	M	SD	M	SD		
신체화	1.40	.52	1.49	.61	1.77	.79	1.98	.87	9.36*	1<3,4 2<4
강박증	1.89	.61	2.18	.78	2.53	.81	2.63	.93	11.77*	1<3,4 2<4
대인 민감성	2.04	.76	2.19	.76	2.52	.84	2.74	1.0	9.22*	1<3,4 2<4
우울	1.74	.59	2.05	.86	2.28	.81	2.45	1.0	8.63*	1<3,4 2<4
불안	1.50	.49	1.76	.65	1.99	.75	2.24	.97	12.18*	1<3,4 2<4
적대감	1.47	.57	1.61	.67	1.84	.76	2.41	.95	20.80*	1<3,4 2<4 3<4
공포	1.33	.39	1.53	.59	1.81	.72	1.96	.90	11.16*	1<3,4 2<4
편집증	1.67	.54	1.67	.59	1.98	.69	2.24	.97	10.23*	1<4 2<4
정신증	1.67	.60	1.83	.68	2.10	.63	2.21	.84	8.20*	1<3,4 2<4
GSI	1.59	.41	1.77	.57	2.01	.63	2.27	.84	14.48*	1<3,4 2<4

* $p < .001$ GSI=Global Severity Index, 사후검정은 Scheffé의 방법을 사용하였을 때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만 제시하였음 ($p < .05$).

하지 못했다는 한계점이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한계점을 극복하고, 보다 더 정확하게 정서 인식과 표현에 따른 대처양식을 구분할 수 있도록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여 새롭게 4 요인구조(조절적 정서인지, 차폐적 정서행동, 발산적 정서행동, 조절적 정서행동)를 밝혀냈는데 의의가 있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CUEE가 가진 요인 간 높은 교차 부하량의 문제를 해결하여, 한 문항이 여러 요인에 속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거함으로써 척도의 구조를 분명히 밝혔고, 이는 정서 중심 대처와 관련된 후속 연구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이전의 CUEE가 18문항으로 정서 대처방략의 60.34%를 설명하는 데 반해, 본 연구에서 밝

혀진 CUEE 4요인은 14문항으로 총 58.47%를 설명함으로써 보다 경제적인 요인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더 나아가, 기존 CUEE의 5요인 구조에서는 두 개의 문항으로 이루어진 요인이 하나 존재했는데, 본 연구에서 밝혀낸 4요인 구조에서는 모든 요인이 3개 이상의 문항을 포함하고 있다. 각 요인들이 적어도 3개 이상의 변수를 포함하는 요인 구조가 그렇지 않은 요인 구조보다 더 적절하다(MacCallum, Widaman, Zhang, & Hong, 1999; Zwick & Velicer, 1986). Gorsuch(1983)에 의하면, 이러한 기준을 준수할 경우 일부 항목에만 존재하며 일반화되기는 힘든 사소한 요인을 제거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무엇보다도 이 4요인 구조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는 고무적이며, 이전에 제안되었던 5요인 모형 보다 4요인 모형이 실제 자료에 더 부합함을 분명히 지지하고 있다. 많은 요인분석 연구들에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지 않고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에만 의존함으로써 분명치 않은 요인 구조에 바탕을 둔 연구결과를 일반화해온 문제점이 있었음에 비해 본 연구 결과는 정서 중심 대처방략의 차원들에 대한 분명한 지침을 제공해 준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가 있다. 몇 개의 요인에서 문항의 내적 일치 신뢰도가 낮은 점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후속연구에서 이 부분에 대한 추가적인 타당화 작업과 개선이 필요하지만, 그것이 본 연구 결과 자체가 지니는 의의를 반감시키는 것은 아니다.

CUEE의 요인 구조를 해석함에 있어 가장 특징적인 것은, 본 연구에서는 CUEE 척도 개발 당시의 가설과 달리, 정서의 인식보다는 표현의 측면, 즉 정서행동을 대표하는 요인으로 치중해서 나타났다는 점이다. 이론적·개념적으로는 정서이해 및 표현의 차원과 조절·차폐·발산의 차원의 2×3의 조합으로 6요인이 가정되지만 본 연구의 탐색적 요인분석과 확인적 요인분석에서 밝혀진 요인 구조는 조절적 정서인지, 조절적 정서행동, 차폐적 정서행동, 발산적 정서행동으로서, 행동적 차원이 세 가지 양식으로 모두 나타난 반면 인지적 차원은 한 가지 양식(조절)으로만 나타났다.

인지적 차원에 있어서 발산이나 차폐적 양식은 나타나지 않고 조절적 양식만 나타난 것은 정서 대처에 있어 나쁜 기분을 자꾸 떠올리는 발산적 인지나 정서를 숨기고 억제하는 차폐적 인지라고 하는 이 두 가지가 조절적 인지 내에 혼재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 예를 들어, ‘기분이 좋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 계속 생각한다.’는 조절적 정서인지의 차원에 속한 문항이지만 때로는 이것이 나쁜 기분에 대해 자꾸 떠올리게 하는 발산적 인지를 일으킬 수 있고, 계속 생각한다라는 것이 억제하기 위한 자기 감찰의 차원으로서 작동하는 것(Richards & Gross, 1999)일 수도 있다. 개인 내에서 이루어지는 정서 인지적 처리는 외부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서 표현양식처럼 구분되고 정교하게 발달되지 않았을 수 있다. 또는 정서적 대처에서는 이해보다는 표현이 더 중요할 수 있다. 정서 대처 연구에서도 상당수가 정서 표현과 관련하여 이루어진다는 것(Kalat & Shiota, 2007)도 정서의 대처의 이

러한 특징을 반영할 수 있다.

그러나 군집분석 결과를 고려할 때, 정서 인지 측면에서 단일차원으로 나타난 조절인지는 단순하게 기능하지는 않는다. 군집별 요인들의 조합과 적용의 관계를 검토하면, 정서인식은 차폐나 발산과 같은 차원이 구분되지 않지만, 동반하는 표현양식에 따라 그 영향이 달라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조절인지 차원이 조절행동과 조합될 때와 차폐행동과 조합될 때 각각 상이한 적용결과에 이른다는 것이다. 억제가 억제하려는 사고나 정서와 생리적 반응을 오히려 증가시킨다는 선행연구(Gross, 1998; Wegner, Erber, & Zanakos, 1993)를 고려하면, 정서표현의 차폐는 정서인식을 통한 대처를 반추(rumination)의 성격을 갖게 한다는 점을 추측할 수 있다. 표현하지 못하고 억제하면 개인은 자신의 상태를 명료하게 이해할 기회가 적어지고 더 반추하게 되며, 그에 따라 우울증상을 겪는다고 보고되고 있다(Gross & Levenson, 1997; Nolen-Hoeksema, 1993; Salovey et al., 1995). 반면, 자신의 느낌을 말하거나 글을 쓰는 것이 반추를 감소시킨다(Greenberg, 1995). 정서의 표현은 자신의 내적인 느낌과 상황에 대한 피드백을 증가시켜 정서적 통찰을 촉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Pennebaker, 1995). ‘높은 차폐행동 집단’이 부적응적 상태를 나타내는데 비해 ‘높은 조절 집단’이 적응적 상태를 나타내는 것은 두 집단이 사용하는 표현양식이 다를 뿐 아니라 두 집단에서 모두 높게 나타난 정서인식 경향이 집단에 따라 상이한 성격을 가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정서인식을 통해 대처하려는 경향성은 단일차원이지만 이들이 어떤 행동 및 상황조건과 조합되는가에 따라 반추나 정서명료성 같은 다양한 인지적 대처 결과로 나타날 수 있음을 제안한다.

아울러 군집 분석에서 나타난 하위 집단에 따른 심리적 건강 수준의 차이를 알아본 연구에서, 발산적 정서행동을 보이는 사람들이 전반적으로 심리적으로 부적응을 겪는 것으로 나타난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군집에 속하는 대학생들의 경우, 습관적으로 부정적 감정을 분출하는 것이 이들의 심리적 부적응과 관련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측면은, 엉뚱한 대상에 분풀이를 하고 짜증을 내며 소리를 지르는 등의 부적절한 분출을 하는 것이 심리적 건강에 해로울 수 있다(Siegmán, 1994; Siegmán, Anderson,

& Berger, 1990)는 결과와 일관적이다. 이처럼 발산적 대처가 부적응 지표와 유의미한 상관을 보이는 것은 최혜연과 민경환(2003)의 연구에서도 나타난 바 있다. 그러나 척도의 발산적 정서행동에 포함된 문항들이 부적응적으로 평가되는 표출행동들만으로 구성되어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일 가능성도 고려해 보아야할 것이다. 척도 제작 시, 정서표현과 직접 관련된 행동만을 포함한다는 기준을 충족시키고 교차요인 부하량이 높은 문항들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중립적인 발산행동들(울기, 운동하기 등)이 배제되고 부정적인 항목의 비중이 높아졌다는 문제점이 존재할 수 있다. 이런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서 향후 중립적 발산행동들을 포함한 대처척도와와의 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흥미로운 것은 정서 대처 점수에서 전반적으로 낮은 점수를 보이는 ‘낮은 정서대처 집단’이 다른 집단들에 비해 부적응 수준이 높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 점은 정서 대처가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낮은 정서 대처 수준을 보이는 집단이 심리적 건강에서 크게 문제를 보이지 않을 수도 있음을 조심스럽게 시사한다. 예를 들어, 정서 대처 수준은 낮지만, 다른 대처 수준(예, 문제 중심 대처) 수준이 양호하다면 부적응을 경험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이 척도가 정서 대처방략을 충분히 포괄하고 있는 것이라 말할 수 없고, 또한 문제 중심 대처 수준을 측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그리고 군집분석의 결과가 표본에 따라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본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기 위해서는 다른 표본에서 같은 군집이 형성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정서 인지와 표현의 정서조절양식을 중심으로 이에 따른 하위 집단간 심리적 건강지표의 차이를 알아보았다. 그러나 정서조절 과정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으므로 정서 사건의 스트레스 수준, 개인의 정서성 및 적응상태 등이 혼입되어 결과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므로 후속 연구에서 정서의 인지와 표현에 있어 조절·차폐·발산 등의 정서조절양식의 영향을 분명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상황 및 개인차 요인들을 측정하여 통제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는 요인분석을 통해 ‘정서인식과 표현을 통한 대처’ 척도의 보완 뿐

아니라, 정서 대처의 차원에 따라 어떤 방식으로 하위집단이 나누어지는지, 그리고 각 집단별로 정신건강 수준이 어떤지를 알아보았다는데 의의가 있다. 이는 정서 중심 대처와 정신건강 지표사이의 단순한 상관관계를 넘어서서 어떤 정서적 대처 특징을 가진 사람들이 어떠한 심리적 적응 패턴을 보이는지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참 고 문 헌

- 김광일, 김재환, 원호택 (1984). 간이정신진단검사 실시 요강(Korean Manual of Symptom Checklist-90-Reversion). 중앙적성연구소.
- 최혜연, 민경환 (2003). 정서이해와 정서표현에 의한 대처 척도 보완과 정서-중심적 대처 하위 차원의 기능성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 사회 및 성격, 3, 105-118.
- Aldwin, C. M., & Revenson, T. A. (1987). Does coping help? A reexamination of the relation between coping and mental health.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2, 337-348.
- Ben-Zur, H. (2005). Coping, distress, and life events in a community sample. *International Journal of Stress Management*, 2, 188-196.
- Block, J. H., & Block, J. (1980). The role of ego-control and ego-resiliency in the organization of behavior. In W. Andrew Collins(Ed.), *Development of cognition, affect, and social relations. The Minnesota Symposia on Child Psychology*(Vol.13, pp.39-101). Hillsdale, NJ : Erlbaum.
- Brown, T. A. (2006).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for applied research*. New York : Guilford.
- Browne, M. W., & Cudeck, R. (1993). Alternative ways of assessing model fit. In K. A. Bollen & J. S. Long(Eds.), *Testing structural equation models*(pp. 445-455). Newbury Park, CA : Sage.
- Buck, R. W. (1984). *The communication of emotion*. New York : Guilford.
- Carver, C., & Scheier, M. (1986). Coping with stress : Divergent strategies of optimists and pessimists.

-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 1257-1264.
- Carver, C. S., Scheier, M. F., & Weintraub, J. K. (1989). Assessing coping strategies : A theoretically based approach.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2, 267-283.
- Cole, P. M., Martin, S. E., & Dennis, T. A. (2004). Emotion regulation as a scientific construct : Challenges and directions for child development research. *Child Development*, 75, 317-333.
- Compas, B. E., Malcarne, V. L., & Fondacaro, K. M. (1998). Coping with stressful events in older children and young adolescent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56, 405-411.
- Derogatis, L. R., & Melisaratos, N. (1983). The Brief Symptom Inventory : An introductory report. *Psychological Medicine*, 13, 595-605.
- Derogatis, L. R. (1977). *SCL-90-R : Administration, scoring, and procedures manual I*. Baltimore, MD : Clinical Psychometrics Research.
- Derryberry, D., & Rothbart, M. K. (1997). Reactive and effortful processes in the organization of temperament.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9, 633-652.
- Eisenberg, N., Cumberland, A., Spinrad, T. L., Fabes, R. A., Shepard, S. A., & Reiser, M. (2001). The relations of regulation and emotionality to children's externalizing and internalizing problem behavior. *Child Development*, 72, 1112-1134.
- Eisenberg, N., Guthrie, I. K., Fabes, R. A., Reiser, M., Murphy, B. C., & Holmgren, R. (1997). The relations of regulation and emotionality to resiliency and competent social functioning in elementary school children. *Child Development*, 68, 367-383.
- Eisenberg, N., & Morris, A. S. (2002). Children's emotion related regulation. In R. Kail(Ed.), *Advances in child development and behavior*(Vol.30, pp.190-229). San Diego, CA : Amsterdam.
- Endler, N. S., & Parker, J. D. A. (1989). Coping with frustrations to self-realization : Stress, anxiety and adjustment. In E. Krau(Ed.), *Self-realization, success and adjustment*(pp.153-164). New York : Praeger.
- Endler, N. S., & Parker, J. D. A. (1990). Multidimensional assessment of coping : A critical evalu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8, 844-854.
- Folkman, S. (1984). Personal control and stress and coping processes : A theoretical analysi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6, 839-852.
- Folkman, S., & Lazarus, R. S. (1980). An analysis of coping in a middle aged community sample.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21, 219-239.
- Garnefski, N., Kraaij, V., & Spinhoven, P. H. (2001a). Negative life events, cognitive emotion regulation and depression.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30, 1311-1327.
- Gorsuch, R. L. (1983). *Factor Analysis*(2nd ed.), Hillsdale, NJ : Lawrence Erlbaum.
- Greenberg, M. A. (1995). Cognitive processing of traumas : The role of intrusive thoughts and reappraisals.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25, 1262-1296.
- Gross, J. J. (1998). Antecedent and response focused emotion regulation : Divergent consequences for experience, expression, and physiolog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4, 224-237.
- Gross, J. J. (2001). Emotion regulation in adulthood : Timing is everything. *Current Directions in Psychological Science*, 10, 214-219.
- Gross, J. J., & Levenson, R. W. (1997). Hiding feelings : The acute effects of inhibiting negative and positive emotion.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06, 95-103.
- Hair, J. F., & Black, W. C. (2000). Cluster analysis. In L. G. Grim & P. R. Yamold(Eds), *Reading and understanding more multivariate statistics*(pp.147-205). Washington, DC :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Hakstian, A. R., Rogers, W. T., & Cattell, R. B. (1982).

- The behavior of number-of-factors rules with simulated data. *Multivariate Behavioral Research*, 17, 193-219.
- Hayton, J. C., Allen, D. G., & Scarpello, V. (2004). Factor retention decisions in exploratory factor analysis : A tutorial in parallel analysis. *Organizational Research Methods*, 7, 191-205.
- Hu, L., & Bentler, P. M. (1995). Evaluating model fit. In R. H. Hoyle(Ed.),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 Concepts, issues, and applications*(pp.76-99). Thousand Oaks, CA : Sage.
- Kagan, J., Reznick, J. S., & Gibbons, J. (1989). Inhibited and uninhibited types of children. *Child Development*, 60, 838 - 845.
- Kalat, J. W., & Shiota, M. N. (2007). *Emotion*. Belmont, CA : Thomson Wadsworth.
- Kiesler, D. (1966). Some myths of psychotherapy research and the search for a paradigm. *Psychological Record*, 65, 110-136.
- Lazarus, R. S., & Folkman, S. (1984). *Stress, appraisal, and coping*. New York : Springer.
- MacCallum, R. C., Widaman, K. F., Zhang, S., & Hong, S. (1999). Sample size in factor analysis. *Psychological Methods*, 4, 84-99.
- Mertler, C. A., & Vannatta, R. A. (2001). *Advanced and multivariate statistical methods : Practical application and interpretation*. Los Angeles, CA : Pyrczak Publishing.
- Miller, S. M., Brody, D. S., & Summerton, J. (1988). Styles of coping with threat : Implications for health.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4, 142-148.
- Nolen-Hoeksema, S., & Morrow, J. (1993). Effects of rumination and distraction on naturally occurring depressed mood. *Cognition & emotion*, 7, 561-570.
- Parkinson, B., & Totterdell, P. (1999). Classifying affect-regulation strategies. *Cognition and Emotion*, 13, 277-303.
- Pennebaker, J. W. (1995). *Emotion, disclosure, and health*. Washington, DC :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Pett, M. A., Lackey, N. R., & Sullivan, J. J. (2003). *Making sense of factor analysis : The use of factor analysis for instrument development in health care research*. Thousand Oaks, CA : Sage.
- Richards, J. M., & Gross, J. J. (1999). Composure at any cost? The cognitive consequences of emotion suppression.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5, 1033-1044.
- Salovey, P., & Mayer, J. D. (1990). Emotional intelligence. *Imagination, Cognition, and Personality*, 9, 185-211.
- Salovey, P., Mayer, J. D., Goldman, S. L., Turvey, C., & Palfai, T. P. (1995). Emotional attention, clarity, and repair : Exploring emotional intelligence using the Trait Meta-Mood Scale. In J. Pennebaker(Ed.), *Emotion, disclosure, and health*(pp.125-154). Washington, DC :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Siegmán, A. W., Anderson, R. W., & Berger, T. (1990). The angry voice : Its effects on the experience of anger and cardiovascular reactivity. *Psychosomatic Medicine*, 52, 631-643.
- Siegmán, A. W. (1994). Cardiovascular consequences of expressing and repressing anger. In A. W. Siegmán & T. W. Smith(Eds.) *Anger, hostility, and the heart* (pp.173-197). Hillsdale, NJ : LEA.
- Stanton A. L., Danoff-Burg, S., Cameron, C. L., & Ellis, A. P. (1994). Coping through emotional approach : Problems of conceptualization and confound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6, 350-362.
- Stanton, A. L., Kirk, S. B., Cameron, C. L., & Danoff-Burg, S. (2000). Coping through emotional approach : Scale construction and valid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8, 1150-1169.
- Tavris, C. (1989). *Anger : The misunderstood emotion*. New York : Simon & Schuster.
- Wegner, D. M., Erber, R., & Zanakos, S. (1993) Ironic

processes in the mental control of mood and mood-related though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5, 1093-1104.

Zwick, W. R., & Velicer, W. F. (1986). Comparison of five rules for determining the number of components to retain. *Psychological Bulletin*, 99, 432-442.

Subtypes Based on Coping through Understanding and Expression of Emotion and Psychological Adjustment

Dong-gwi Lee Hye-young Kim

Yonsei University

Hae-Youn Choi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examined the factor structure of the Coping through Understanding and Expression of Emotion Scale through a robust exploratory factor analysis with a large scale of college student sample ($N=905$) as well as a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with another sample of college students ($N=287$). The results favored a 4-factor solution (regulated understanding, masked expressing, vented expressing, and regulated expressing) over the original 5-factor solution. Additionally, with the second sample, cluster analysis entering the four factors as the clustering variables was conducted to identify natural groupings of people in terms of their use of emotion-focused coping. The cluster analysis along with MANOVA results suggest the presence of four clusters (high regulating group, low emotional-coping group, high masked-expressing group, and high vented-expressing group) and the four groups significantly differ on their scores across various psychological symptoms. Particularly, high vented-expressing group reveals the most elevated symptoms among the four groups, which indicates that people venting emotions would experience more psychological distress.

Keywords: Emotion-focused coping; Emotion regulation; Coping; Stress; Psychological health